

사 례 지 방 체 육 시 설 지 원 사 업

17 거창군 스포츠파크 건립

7만 군민의
숙원 풀리다

사업 목적

지역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 여가 선용에 기여

사업지	거창·통영을 비롯한 경상남도 전역
총 사업비	352억3900만원
주요 사업	거창·통영 스포츠파크 조성, 지방 체육 시설 지원
시행	경상남도
사업 기간	2006 ~ 2009년

❁ 의미

개장하자마자 활용도 높은 지역 명물

거창은 독특한 곳에 위치해 있다. 전북의 아래와 경남의 서북쪽 경계에 있다. 지도를 보면 덕유산과 가야산 아래쪽에 자리한 비교적 고원 지대여서 교통이 불편했다.

그러나 88올림픽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 지역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거창군의 인구가 7만명 가량으로 늘어나자 거창의 이미지는 사과 산지에서 벗어나 승강기산업밸리로 바뀌기 시작했다. 2008년에 세계적인 승강기업체인 오티스가 승강기대학 설립에 나서는 등 지금은 거창 하면 경제적으로는 '한국 승강기산업의 허브'로 통한다. 그래도 거창은 서울에서 가려면 아직도 3시간20~30분이나 걸리는 먼 거리다.

거창 인구가 6만명을 넘어서면서 부족한 스포츠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끝없이 대두됐다. 결국 기존의 실내체육관이 있던 자리에 대규모로 보완해서 짓기로 했다. 위치는 바뀌지 않았지만 규모가 워낙 커 사실상 새롭게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망 좋은 황강 옆 양평리에 2006년 2월에 첫 삽을 뜬 후 2009년 10월 11일에 개장한 거창스포츠파크는 군민들로선 해방 이래 최대 공사라고 할 만큼 숙원 사업이었다. 4년여의 기간 동안 4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20만평 부지에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 중앙에 호수와 골프연습장까지 만들었다.

2중 육상 경기 인증을 받은 주경기장은 군민의 6분의 1인 1만1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도시보다 크다.

활용도도 뛰어나다. 준공되자마자 경남FC와 대구FC의 프로축구 경기가 열렸고, 프로축구단은 물론 울산 학성고 축구단까지 전지훈련을 올 정도로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거창은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데다 북쪽을 산맥이 막아줘 겨울에도 생각보다 춥지 않은 곳이다. 온난화 때문인지 12월 중순까지도 파리가 날아다닐 정도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로 무척 가까워 외부 행사를 다양하게 유치할 수 있는 점도 자랑거리다.

2010년 5월에는 경남 청소년한마음축제와 사과마라톤대회까지 열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09년 가을에 스포츠파크를 연 뒤 바로 경남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체전의 탁구 경기를 유치했다.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렸는데, 전국에 거창스포츠파크의 위용을 자랑할 만큼 손색이 없었다.

무엇보다 주민 활용도가 높다는 점은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일단 공원으로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파트촌에서 합수교를 건너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황강 옆에 자리 잡아 운치가 있다. 운동장 주변에는 상수리나무와 느티나무를 심어 아름다움을 더했다. 중앙호수 부근에 산책로가 펼쳐져 있는데, 기와를 얹은 정자를 보면 누구든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다. 인공분수대의 분수는 2010년 무더웠던 여름에 지역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거창 스포츠파크는 지역 인구에 비하면 대단히 훌륭한 시설이다. 그러나 교육도시라는 명칭에서 보듯, 학교가 워낙 많아 쓰임새가 적지 않다. 2011년 초에 스포츠파크 안에 수영장까지 개관하게 되면 군민들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창 스포츠파크는 지역 군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1년여 만에 대내외적으로 '거창의 명소'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활용도로 따지면 전국에서 정상급으로 꼽힐 만하다.

● 또 다른 효과

스포츠파크가 생기면 뭐가 바뀔까

거창 스포츠파크는 스포츠와 공원을 합친 개념의 시설로서 경기장과 공원이 함께 존재한다. 좀 닳은 곳을 찾자면 서울의 올림픽공원이라고나 할까.

스포츠·문화 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진다. 지역과 사례는 다르지만, 서울시가 2010년 10월에 한강공원을 재개장한 지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들의 약 8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나 인라인을 탈 수 있는 데다 산책과 조깅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창의 경우도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좋은 체육 시설이나 백화점 같은 편의 시설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강 양쪽을 잇는 합수교를 사이에 두고 스포츠파크의 맞은편은 벌써부터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베어스타운을 비롯해 주공아파트까지 거창의 신도시가 들어서는 느낌이다. 물론 도시계획상 황강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촌과 스포츠파크가 들어서게 됐지만, 주변 지역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2011년에는 수영장도 개장한다. 게다가 이미 개장한 잔디구장에서선 ‘어린이축구교실’이 열리고 있다. 그만큼 지역의 스포츠 허브로 자리 잡아 가는 셈이다.

거창 스포츠파크는 거창군에 아직 전국적인 브랜드를 지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창 군민에게 독보적이고 자랑할 만한 시설로 보인다. 그만큼 경제적 효과를 주는 활용도 높은 시설이 생겼다는 뜻이다.





피터 드러커의
CAIRA 방식에 의한
성과 진단

거창 군민을 1차 고객으로 선택하다

미션

선진 체육 시설과 공원 건립을 통한 거창 군민의 삶의 질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거창군은 그동안 교육, 산업, 문화축제 등이 발달해 왔다. 승강기산업밸리와 일반 산업단지가 활발하게 가동 중이며, 군 단위로는 드물게 7개 고등학교가 자리 잡은 경남 서북부 지역의 교육 중심지다.

1989년에 시작된 거창 국제연극제는 국내 최고 연극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군민을 위한 스포츠 레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늘 제기돼 왔다. 종합 스포츠 파크 건설을 통해 거창 군민은 비로소 균형 잡힌 삶의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고객

스포츠 레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거창 군민이 1차 고객이다. 그리고 첨단 규격의 스포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전국의 스포츠 행사 수요자들이 2차 고객이다.

성과

스포츠파크 준공 이후 K리그 경기 유치에 비롯해 외지의 대규모 행사나 전지훈련, 그리고 크고 작은 경기를 유치한 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 효과보다는 군민들의 이용 만족도라는 성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거창 군민들은 기존의 공설운동장이 없어진 자리에 국제 규격의 종합 경기장과 주요 종목을 망라한 스포츠 시설이 들어섰다는 데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됐다.

[피터 드러커의 CARA 방식에 의한 사업 성과 진단]

거창군 스포츠파크 건립 CARA 평점 분포

44점

Concentration

군민의 레저 수준 향상 통한 삶의 질 추구에 집중

Abandon

기존 공설운동장
개선 포기

Analysis

철저한 사전
사업 타당성 분석

Innovation

공원 개념 도입한 설계,
신재생에너지 도입

Risk-management

지속적 체육행사 유지의 불확실성



C·A · 집중과 포기 CAIRA · CONCENTRATION & ABANDON

기존 공설운동장 개·보수 과감히 포기

거창군의 체육 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시설의 연계성을 높였다. 그리고 단순한 체육 시설이 아니라 ‘파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원 같은 편안함을 주는 데 집중했다. 주경기장 주변은 연못과 분수를 조성함으로써 말 그대로 공원으로 조성했다.

새로운 전경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은 합리적 포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1985년에 완공되어 오랫동안 군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공설운동장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방향에 대해 전체 군민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었다.

I · 혁신 CAIRA · INNOVATION

잔디밭에서 경기 관람 가능

체육 시설을 포괄한 보편적 문화공원으로 조성했다는 것이 기본적 혁신이다. 그리고 기존의 체육 시설과 차별화된 세세한 배려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주경기장과 관중석 사이에 담장을 없애 골대 뒤쪽과 관중석이 연결되어 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씨름 경기를 보는 듯한 구조다. 심지어 골대 뒤쪽의 관중석 일부는 아예 좌석을 없애고 나무와 잔디만 심어놓았다. 잔디에 앉아서 소풍 나온 기분으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한 배려다. 운동장을 둘러싼 독에는 상수리나무와 느티나무를 심어 친환경적인 운동장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쓰레기 소각로의 폐열을 이용한 수영장 온수 공급은 대표적인 친환경 활용사례로 꼽을 만하다. 소각로는 쓰레기 반입과 파쇄, 소각 처리 등 모든 과정을 자체 소화해 밖으로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소각할 때 발생하는 가스를 다시 태워 완전 연소시키는 친환경 시설이다. 고효율의 폐열 이용시설로 온수가 시간당 3.3t 생성되고 폐수는 복수기를 통해 환원되어 냉각수 같은 자체 용수로 재활용된다.

전북 · 경남 · 경북 3개 도의 체육 수요 흡수 가능

스포츠파크 일부는 수십년 전에 조성된 쓰레기 매립지 상부에 위치함으로써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매립지 상부에 테니스장 · 게이트볼장 · 족구장 · 골프연습장 · 궁도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이 있고, 쓰레기 소각로도 위치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가능한 위험보다는 완공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이 더 크다. 사실 전국 단위의 체육 행사를 계속해서 유치하지 못할 경우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스포츠파크 준공 이후 K리그 경기 유치,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행사 유치, 프로축구 선수단 전지훈련, 전국 지적공사 노조 창립 행사 유치 등의 실적을 올린 것을 보면 홍보와 노력이 지속되는 한 향후에도 큰 행사를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 경남, 경북 3개 도의 경계에 자리 잡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3개 도의 체육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거창군은 스포츠파크 건설을 위한 사전 기획 및 정보 분석에 많은 공을 들였다. 2002년에 ‘군민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뢰해 기존 공설운동장 주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합수천변 둔치 정비 등의 연구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의 상세한 자문과 다른 시 · 도의 체육 시설 건설 및 운영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쳤다.



공설운동장 주변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출발점이 됐다. 그리고 거창군의 모든 체육 시설을 집적화해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이들 시설의 주차장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도 높였다.

스포츠 시설만이 아니라 문화 공간 기능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조경과 배치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국제 석재 심포지엄에 출품된 조각품을 공원에 설치한 것이 좋은 사례다. 결과적으로 운동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 외부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후 다른 지역의 체육 시설 성공 사례도 벤치마킹했다.

인과지도 요소

